

‘코로나로 애로’ 中企 지원 위해 신한금융, 외화소셜본드 첫 발행

해외투자자 대상 미화 5억달러
채권 발행금리 1.365%
국내 업계 최초 특수목적채권 발행

신한금융지주가 지주사로는 처음으로 외화 소셜본드 5억달러 발행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지주는 7일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해외투자자 대상 미화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소셜본드(Social Bond)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소셜본드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목적채권이다. 신한지주는 이미 지난해 8월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지속가능(ESG)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

행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발행은 신한지주의 높은 신용등급(Moody's A1, S&P A)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채권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10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인 1.365%이다.

특히 신한지주는 국내 금융지주회사 중 유일하게 특수목적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이를 외화로 발행한 것 역시 신한지주가 처음이다. 신한금융은 이번에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소셜본드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신한금융은 지주의 높은 신용등급 및 발행 역량을 활용해 비은

행 회사의 외화조달 장구를 지주로 일원화 하는 등 그룹차원의 최적화된 외화조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번 소셜본드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행됐다”며 “코로나19로 변동성이 높아진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기업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행은 총 134개 기관에서 발행규모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약 23억달러의 주문을 확보했다. 지역별로는 ▲미주 23% ▲아시아 59% ▲유럽 18% 등의 분포를 보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장미경 부행장(가운데) 및 임직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덕분에 챌린지’ 수어를 표현하고 있다. /농협은행

NH농협은행, 전국민 응원 ‘덕분에 챌린지’

NH농협은행은 지난 6일 여신심사 부문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국민에게 존경과 감사,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응원 캠페인이다. 국민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담은 수어를 표현한 사진과 관련 해시태그를 SNS에 게시하고, 릴레이 형식으로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당초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

하다가 지난 6일부터 전 국민을 응원하는 캠페인으로 확대됐다.

장미경 부행장은 지난 1일 수협중앙회 강신숙 상무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은행연합회 김혜경 상무와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이향숙 교수를 지명했다.

장 부행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농협은행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 올해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 항공업·해운업 영위 기업
심의회 거쳐 2020년 필요자금 고려
고용유지 위한 노사 노력사항 제출



정부가 올해말까지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기간안정기금 신청을 받는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을 받는다.

산업은행은 7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단, 기간산업 추가 지정시에는 별도 공고한다.

기업은 2019년 연말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으로, 지난 5월 기준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12월 결산법인인 아니거나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별도로 공시

하는 기업은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이용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이다. 기업이 필요자금 규모를 신청하면 심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규모가 확정된다. 심의회는 2020년 중 필요자금을 우선 고려하되, 필요에 따라 2021년 자금도 포함할 수 있다.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기타 영업과 관련된

지 않은 비용 발생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단 기금의 자금지원과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유예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출기간은 3년이며, 필요시 기금의 운용기간을 감안해 산정한다. 상환은 분할상환방식과 일시상환방식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등을 감안해 산정하고,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 3%로 적용한다.

지원조건은 지난 5월 기준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을 제출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을 자사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원리금 보장상품’

하나은행은 7일 퇴직연금 전용 자유적립식 원리금 보장 상품을 출시했다. 자유적립식 원리금 보장 상품은 하나생명보험과 협업해 개인 퇴직연금(IRP) 손님에게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다.



율은 2.2%(세전수익률)로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조기 중단된다.

이장성 연금사업단 본부장은 “그동안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은 입금 시마다 만기 및 이율이 상이하여 자산 관리에 불편함이 많았으나, 자유적립식 상품 출시를 통해 다양한 상품 선택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손님들에게 더 최적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은 상품 매수 시마다 만기와 적용 이율이 다르나 자유적립식 원리금 보장 상품은 최초 매수 시 만기 및 이율이 확정돼 금리 하락 시기에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상품은 개인형 IRP 신규 가입 손님 및 타 금융기관 계좌이전 손님이 한해 비대면(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 채널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 1만원 이상으로 가입 기간은 1년이며 7월 기준 판매 예정이

BNK부산은행

시각장애인 거래 편의 확대

BNK부산은행은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확대를 위해 부산점자도서관과 ‘점자약관’ 등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점자약관 등을 요청하면 부산점자도서관에 제작을 의뢰한다. 제작이 완료되면 우편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분들께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점자도서관과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우리은행, 홍콩 IB법인 S&P ‘A등급’ 획득

홍콩우리투자자銀, 작년 최대 영업실적

우리은행은 홍콩 IB법인인 홍콩우리투자자은행(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로부터 국제신용등급 ‘A(긍정적)’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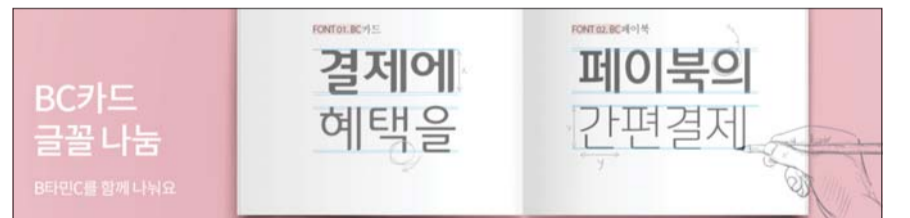
S&P는 홍콩우리투자자은행에 장기신용등급 중 6번째로 높은 ‘A’를 부여했다. S&P측은 이번 평가 이유에 대해 “우리금융그룹에 해외대체투자 등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며 홍콩에서 우리은행의 핵심 회사사로 역할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콩우리투자자은행은 우리금융그룹에서 유일하게 해외IB 플랫폼 및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홍콩우리투자자銀, 작년 최대 영업실적

홍콩우리투자자銀行의 100% 출자사로 지난해에는 2006년 창립 이래 최대 영업수익 실적을 기록했다. 세전 자기자본이익률 6.7%, 평균자산순이익률 1.3%를 달성 등 우리은행 글로벌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2018년부터 2년 연속으로 한국기업의 해외채권 발행 주선 1위(발행금액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은행 IB그룹 강신국 상무는 “홍콩우리투자자은행이 시중은행 해외법인 최초로 홍콩에서 S&P 국제등급을 받은 것은 IB 전문능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영업의 결과”며 “이번 등급 취득이 우량사업에 대한 금융우선 등 글로벌 IB영업을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BC카드에서 공개한 ‘BC카드체’, ‘페이북체’ 이벤트 안내문. /BC카드

BC카드가 개발한 글꼴 무료 배포

BC카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글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번에 배포하는 글꼴은 총 두 종류다. BC카드 CI인 원형 심볼을 모티브로 친근한 느낌을 살린 ‘BC카드체’, 직선의 요소를 반영에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페이북체’다. 두 종류 모두 BC카드의 홈페이지와 페이북 서비스를 통해 사용해온 글씨체다. /이영석 기자 ysl@

BC카드 관계자는 7일 “폰트는 유료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개인, 소상공인, 기업 등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상업적 용도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꼴은 비씨카드 홈페이지 이벤트 ‘문화·여가’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영석 기자 ysl@